

Millions Missing?

millionsmissingguide.org/ko/

1. 예수님, 구원, 소망에 대한 성경의 답
2. Millions Missing?
3. 창조에서 십자가까지의 이야기
4.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라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나요?
5.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6. 죄란 무엇인가요?
7.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8.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 구원받는 방법
9. 기도하는 법
10.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11.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2. 사탄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해하기
13. 수백만 명이 사라졌다면 —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4.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나요?
15. 성경 예언 — 요한계시록과 앞으로 일어날 일
16. 두려움, 불안, 격려를 위한 성경 구절
17. 두렵거나, 상실로 아프거나, 외로울 때
18. 생존과 비상 대비
19. 비상 대비와 생존

여러분을 위한 편지와 기도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웹사이트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이야기는 영영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무섭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았거나, 답을 찾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두렵지 않은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 페이지들이 여러분이 진리와 소망과 평안을 찾도록 돕기를 기도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도록 돕기를 기도해요. 그분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읽고, 질문하고,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바램은 그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직접 알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이 글을 읽는 사람 곁에 가까이 계셔 주세요. 두려워하고 있다면 평안을 주세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세요. 아파하고 있다면 위로해 주세요. 외롭다고 느낀다면 주님이 그를 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세요.

읽는 동안 인도해 주세요. 무엇이 참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오늘을 위한 용기와 내일을 위한 소망을 주세요. 무엇보다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 주세요.

그를 지켜 주세요.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자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달기를 바라며, 사랑과 기도를 담아.

지금 가진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 소망에 대한 성경의 답

두렵고, 혼란스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거나, 그저 소망을 찾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오게 한 질문을 고르세요.

선택은 자유예요

이 웹사이트는 도우려는 것이지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예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라고 초대하세요.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예요.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알고 신뢰하고 싶어서이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만 먼저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께 나아오기 전에 삶을 깨끗하게 하거나 성경 전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요여기서 시작

성경이 처음이신가요?

전체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창조, 사탄, 죄,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이야기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쉬운 설명도 담았어요.

창조 → 사탄 → 죄 → 예수님 → 십자가 → 구원

지금 격려나 성경 구절이 필요하신가요?

두렵고, 걱정되고, 외롭고, 아프고, 잠을 이룰 수 없거나, 그저 평안이 필요하다면, 그런 순간을 위해 고른 성경 구절 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어요.

격려와 성경 구절 →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사라졌고 휴거와 성경 예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악이 있나요?

어려운 질문에는 부드러운 대답이 어울려요. 자유로운 선택, 깨어진 세상, 고통, 예수님, 그리고 악을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나요? →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분의 사랑, 삶, 십자가, 부활에 대해 알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

죄란 무엇인가요?

죄라는 말이 거칠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쉬운 일상의 예로 그 뜻을 알아보세요.

죄란 무슨 뜻인가요? →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죄가 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 보세요.

왜 예수님? →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용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세요.

구원받는 방법 →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단순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도하는 법 →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

방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 무엇을 하죠?

기도, 성경 읽기, 성장, 용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기,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한 간단한 다음 걸음이에요.

다음에는 무엇을? →

영적 악과의 싸움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사탄, 유혹, 책임 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세요.

영적 전쟁 →

천국과 영원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심판, 예수님 안의 우리 소망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천국에 대해 읽기 →

위로와 찬양

상실로 아프거나, 두렵거나, 외롭거나, 너무 벅차다면 성경 말씀과 격려를 찾으러 여기로 오세요.

위로 찾기 →

생존과 비상 도움

실질적인 생존, 비상 대비, 식량, 물, 대피처, 위기 정보예요.

실질적인 도움 →

더 많은 성경 도움말

성경 예언

이 사이트의 성경 예언과 요한계시록 자료를 읽어 보세요.

[성경 예언 →](#)

전체 오프라인 안내서

공개된 사이트 전체를 오프라인에서 읽을 수 있도록 저장하거나 인쇄하세요.

[전체 안내서 내려받기 →](#)

내 언어로 읽기

언어 선택 메뉴를 사용해 이 사이트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 보세요.

[언어 도움말 →](#)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분께 나아오기 전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한 일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가 주어진다고 가르쳐요. 솔직하게 그분께 나아와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으세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분께 구하세요.

성경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다면요?

괜찮아요. 한 번에 질문 하나씩 시작하세요. 이 안내는 쉬운 말을 쓰고, 성경의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오늘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 하나로 시작하세요. 한 페이지를 읽어 보세요. 간단한 기도를 드려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된 뒤에 나아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요기도하는 법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Millions Missing?

두렵거나 혼란스럽더라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안내서는 사랑으로 남겨졌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예수님을 만나요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경이 처음이라면

모든 주제를 이해하려 하기 전에 큰 그림부터 시작하세요. 창조에서 십자가까지 페이지가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사탄, 사람의 타락, 죄,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구원을 순서대로 설명해요.

창조에서 십자가까지의 이야기 읽기 →

여러분께 드리는 개인적인 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이야기를 영영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이 글을 발견하고 읽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난 일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좋은 판단력을 주시고, 두려울 때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능한 한 모두 남겨 둘 만큼 마음 쓴 사람이 보낸 편지로 읽어 주세요. 무섭고, 화나고, 혼란스럽고, 상실로 아프거나,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저 막막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이 안내서가 힘든 날들을 지나도록 돕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바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저를 찾아서 이 글을 읽었다고 말해 주세요. 얼마나 멋진 만남이겠어요.

여러분은 기도받았어요.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소망이 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필요한 것을 찾아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휴거, 환난,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서 시작 →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친구를 만나 보세요.

그분을 만나기 →

구원받는 방법

요한복음 3:16, 로마서 10:9, 십자가와 부활.

이것 읽기 →

천국과 영원

금, 아름다운 보석,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

더 알아보기 →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성경 예언에 대한 쉬운 안내예요.

성경 예언 이해하기 →

격려와 성경 구절

두려움, 불안, 걱정, 외로움, 슬픔, 잠 못 드는 밤, 평안, 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격려의 성경 구절 읽기 →

위로와 찬양

두려움, 상실 후의 슬픔, 외로움을 위한 성경 말씀과 노래예요.

위로 찾기 →

실질적인 도움

비상 시 행동 단계, 식량, 물품, 그리고 긴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예요.

실질적인 도움 받기 →

오프라인 자료실

무료 KJV 성경, 인쇄할 수 있는 안내서, USB 드라이브 팁이에요.

도움 내려받기 →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한 가지

이 안내서를 닫기 전에 아주 개인적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열기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는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이 참인지 알게 도우시고, 상실로 인한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이 글을 읽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겪으셨는지, 내일 무슨 일이 올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바라는 것은 알아요.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다면, 이 안내서를 찾게 만든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나아가세요. 그분의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좋은 판단력을 구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두려울 때는 이 페이지를 찾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만나기를 바라요.

복사하세요. 인쇄하세요. 나누세요.

출처 표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자료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복사하고, 인쇄하고, 저장하고, 번역하고, 맞게 고치고, 나눌 수 있어요. 공개용으로 고친 모든 버전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지워주세요.

전체 오프라인 안내서 내려받기처음으로 돌아가기

성경이 처음이신가요? 여기서 시작하세요.

창조에서 십자가까지의 이야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큰 그림부터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나님, 창조, 사탄의 반역, 사람의 타락, 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원받는 것까지 이야기를 순서대로 따라가요.

하나님부터 시작하기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1.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삼위일체에 대한 쉬운 설명

그리스도인은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고 알려 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흔히 **삼위일체**(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보다 크신 분이라고 인정해요.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니” - 신명기 6:4 (개역한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계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부르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고 말해요.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다고 해요. 그 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한복음 1:1 (개역한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요한복음 1:3 (개역한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요한복음 1:14 (개역한글)

성령은 창조 때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 창세기 1:2 (개역한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분명한 그림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은 물속에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와요. 세 분은 서로 구별되지만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3:17 (개역한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거나,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거나, 성령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도, 서로 다른 세 하나님에 대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 한 분 참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2.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창세기 1:1 (개역한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해와 달,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들려줘요. 창조가 끝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특별히 소중해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우리가 겉모습이 그분과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비추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소통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옳고 그름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 능력, 배경, 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 창세기 1:27 (개역한글)

3. 사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은 사탄, 곧 마귀라고 불리는 실제 영적 원수가 있다고 알려 줍니다. 뱀, 시험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도 불러요.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깊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자라...” - 요한계시록 12:9 (개역한글)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그분을 거역했다고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기 방법을 원했어요. 성경은 이 반역을 길고 자세한 이야기로 알려 주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탄은 왜 사람을 미워하나요?

성경에는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곧바로 말하는 구절이 하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중요한 이유의 일부라고 이해해요.

여러분은 사탄이 반역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을 알도록 지어졌고, 그분과의 관계로 초대받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대적해요.

그렇다고 사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또 다른 신이 아니에요. 그는 지음 받은 존재이고, 성경은 그의 최종 패배가 확실하다고 가르쳐요. 그를 이해하는 목적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왜 유혹, 거짓말, 영적 공격,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야 할 필요에 대해 말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아름다움, 교만, 반역의 모습을 **에스겔 28:12-17**과 **이사야 14:12-15**에서 찾기도 해요.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게 한 말씀이어서, 이것이 사탄을 얼마나 직접 가리키는지는 그리스도인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도 그 표현에는 에덴, 기름 부음 받은 그룹, 큰 아름다움, 그리고 나중에 죄가 발견된 지음 받은 존재가 나와요.

개역한글에서 에스겔 28:13은 **아홉 가지 보석**을 말해요. 어떤 성경 교사들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21:19-20의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과 견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 내려다 미치지 못하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기도 해요. 성경이 직접 보석의 개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열두 보석도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것은 도움이 되는 그림으로 볼 뿐,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로 여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장 분명한 점은 이사야에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분과 동등해질 수도 없어요.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 이사야 14:14 (개역한글)

4. 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창세기 3장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했다고 말해요. 아담도 불순종했어요. 죄가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고 사망이 뒤따랐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 로마서 5:12 (개역한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상에는 죽음, 고통, 유혹, 깨어진 관계, 불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아니었어요. 반역과 죄가 깨어짐을 가져왔어요.

5. 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죄는 엄청난 범죄만의 목록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거짓말, 도둑질, 질투, 음욕, 미움, 이기심, 잘못된 줄 알면서 일부러 그것을 택하는 것처럼 “작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도 포함돼요.

용서가 필요하려고 십계명을 전부 어길 필요는 없어요.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야고보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을 어긴 죄가 있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3:23 (개역한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 야고보서 2:10 (개역한글)

죄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갈라놓아요. 이사야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말해요. 죄를 짓지 않은 척하거나 선행으로 모든 것이 상쇄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워지지 않는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 이사야 59:2 (개역한글)

죄에 대한 더 자세하고 쉬운 설명 읽기 →

6. 죄의 삶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로마서 6:23 (개역한글)

살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예요. 성경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심각하고 실제적인 일로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소망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3:15을 궁극적으로 뱀을 이길 분을 가리키는 첫 약속으로 이해해요. 구약은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하며 이어져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히 “더 노력해 봐”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대답은 구주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7.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참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삶, 곧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요한복음 3:16 (개역한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히브리서 4:15 (개역한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긍휼을 보이시고, 위선을 꾸짖으시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죄인들을 환영하시고,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본보기만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더 자세히 만나기 →

8. 왜 십자가인가요?

우리는 죄의 빚을 갚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분은 죄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로마서 5:8 (개역한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 베드로전서 2:24 (개역한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자기 몸에 지셨어요.

읽어 보기: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

9.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신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고린도전서 15:3-4 (개역한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는 분은 살아 계세요.

10.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되돌아가서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구원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어떻게 응답할지 선택하도록 허락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질문해도 되고, 성경을 직접 읽어도 되고,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해도 돼요.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도록 누구도 압박받아서는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마태복음 11:28 (개역한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초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다면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완벽한 이해나 완벽한 믿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믿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에베소서 2:8 (개역한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 로마서 10:9 (개역한글)

먼저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 전체를 알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와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면 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11. 이야기는 계속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고, 유혹에 맞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법을 배워요. 성경은 또 사탄의 최종 패배가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사탄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알아보기 →

천국과 영원에 대해 읽기 →

어려운 질문에는 부드러운 대답이 어울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나요?

상처받았거나, 누군가를 잃었거나, 잔혹함을 목격했거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그저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부르짖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 페이지는 모든 아픈 상황에 쉬운 설명이 있는 책이지 않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 잔혹함, 학대, 질병, 죽음, 불의를 즐기신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겠지”라고 말하며 악을 변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 요한일서 1:5 (개역한글)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한동안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대적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결국 악을 영원히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 줘요.

1. 사랑에는 진짜 선택이 포함돼요

하나님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강요된 순종은 자유롭게 드리는 사랑과 같지 않아요.

이 자유는 사람이 친절, 신실함, 희생,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이기심, 미움, 폭력, 부정직, 잔혹함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의 많은 악은 사람이 자유를 서로를 해치는 데 쓰는 데서 와요.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 여호수아 24:15 (개역한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하게 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경고하시고 선한 것으로 부르세요.

2.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선하다고 설명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죄가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고, 죄와 함께 깨어짐과 사망이 왔어요. 성경은 창조 자체가 그 깨어짐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해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 로마서 8:22 (개역한글)

그래서 고통이 의도적인 사람의 잔혹함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 설명돼요. 성경이 더 이상 처음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질병, 재해, 늙음, 사고, 죽음도 겪어요.

3. 영적인 악도 있어요

성경은 사탄과 다른 반역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고 파괴하려 한다고 가르쳐요. 사탄은 실제로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그는 지음 받은 존재이고, 힘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의 최종 심판은 이미 성경에 선언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나쁜 일을 자동으로 사탄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더 큰 그림을 보여 줘요. 사람의 선택, 타락한 창조, 우리 자신의 약함, 영적 공격이 모두 이 깨어진 세상에서의 삶의 일부일 수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더 읽기 →

4. 고통이 하나님이 벌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비극에 대해 그렇게 단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웁은 성경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도 끔찍하게 고통받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눈먼 것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물리치셨어요.

아프다면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 분노, 상실로 인한 슬픔, 혼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5.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 하지 않으시면서도 악에서 선을 이끌어 내실 수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악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일하셔서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구원, 성장, 선을 이끌어 내신 이야기가 많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 창세기 50:20 (개역한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로마서 8:28 (개역한글)

그렇다고 학대, 살인, 배신, 질병, 비극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악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했던 척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언가 선한 것을 이끌어 내실 수 있어요.

6.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멀리서 고통을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배고픔, 거절, 상실의 슬픔, 배신, 육체의 고통, 불의, 죽음을 겪으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요한복음 11:35 (개역한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로마서 5:8 (개역한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우리 죄를 자기에게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픔을 가져갈 때, 여러분은 고통을 낮설어하시는 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7. 하나님은 왜 지금 모든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시지 않나요?

이것이 질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결국 악을 심판하고 없애실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아직 역사를 마지막 심판으로 이끌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설 시간을 주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를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과 연결해 설명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베드로후서 3:9 (개역한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는 개입하시고 다른 상황에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계속 물을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개별 비극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주지는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척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8.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이 깨어진 채로 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의 최종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은 사망, 슬픔, 울음, 고통이 사라지는 미래를 약속하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못에 던지우니...” - 요한계시록 20:10 (개역한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 요한계시록 21:4 (개역한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악이 상상 속의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악은 일시적이고 예수님이 결국 그것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9.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요?

계속 물어도 돼요. 믿음은 질문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 중 몇몇도 하나님께 “왜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아프고 혼란스러워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을 주세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알아보고,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초대는 진짜이고, 여러분의 선택도 진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고통을 허용하시나요?

성경은 우리 세상이 죄로 깨어졌고 사람에게에는 실제 선택이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으시고, 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일어나는 나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병, 사고, 비극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신다는 뜻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아픔, 슬픔, 배신, 고통을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움과 상처를 그분께 가져갈 수 있어요.

짧은 대답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나요? 성경은 답의 여러 조각을 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타락하고 깨어진 창조 안에 살아요. 영적인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아직 마지막 심판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끔찍한 상황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비극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오셨고, 악은 심판받을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말해요.

전체 이야기 읽기예수님을 만나요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중요하신지, 또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시고 이 안내서의 중심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그분을 통해 주어진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 종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용서와 구원,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요한복음 3:16 (개역한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 때문에 여기에 오셨다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짐, 두려움, 후회,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아오기 전에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것에는 우리가 하는 잘못,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방식, 옳은 것에 미치지 못하는 방식이 포함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예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신뢰를 둘 수 있어요.

읽어 보기: 구원받는 방법

예수님과 천국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6 (개역한글) 이 안내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성경이 그분을 아버지께로,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으로 가는 길로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어 보세요.

지금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한 종교적인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후회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그분께 믿음을 두고 싶다면, [구원받기](#) 페이지에서 구원에 대한 쉬운 설명과 기도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믿어요.

나쁜 선택을 했어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스스로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솔직하게 나아와 그분의 용서를 받도록 초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갈 수 있나요?

기도로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성경이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으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세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왔거나 휴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읽어 보세요. 두렵거나 위기에 처해 있다면 긴급 안내서를 보세요. 이 정보를 오프라인에 보관하고 싶다면 오프라인 자료실을 방문하세요.

교회 용어 없이 쉽게 풀어 쓴 성경적 설명이에요.

죄란 무엇인가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교회 용어에 익숙할 필요는 없어요. 죄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성경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특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구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이 페이지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지 설명하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모두 용서가 필요하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라는 말을 쓰는 것을 듣고 실제로 무슨 뜻인지 궁금했을 수 있어요. 거칠거나 무서운 종교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읽기를 멈추기 전에 중요한 것을 알아주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만 지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죄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해 보이고, 어떤 죄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껌 한 통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 본 적이 있나요? 식당에서 물을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고 컵에 콜라를 채워 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 하라고 한 것을 일부러 거스른 적이 있나요?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축구, 스포츠 경기, 취미, 돈, 혹은 다른 무엇이든 하나님이나 교회에 가는 것,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내 삶에서 더 중요해지게 둔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음욕으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새 장난감, 자동차, 집, 직장, 연애, 혹은 내가 원하던 다른 무엇을 가졌다는 이유로 질투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네가 싫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일상의 예예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척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3:23 (개역한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죄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갈라놓아요. 그 갈라짐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충분히 선한 일을 하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고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 고린도후서 5:18 (개역한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로마서 6:23 (개역한글)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치를 수 없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선물로 주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 요한계시록 20:14 (개역한글)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로마서 6:23)라고 말해요. 값은 벌었거나 빚진 것이예요. 죄에는 사망이라는 실제 결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심판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설명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심판을 우리가 직접 치르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거기서 건질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 요한계시록 21:27 (개역한글)

성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세요. 죄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그냥 가져갈 수는 없어요. 성경은 속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은 눈이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단절을 만들어요.

죄는 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나요?

그리고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죄를 단 한 번만 짓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요.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용서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 야고보서 2:10 (개역한글)

하나님과 갈라지고 그분의 용서가 필요해지기 위해 십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길 필요는 없어요. 평생에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해요. 예를 들어, 평생 잘못된 일이 거짓말 한 번뿐이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성경은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그 사람이 율법 앞에서 죄가 있다고 말해요.

용서가 필요하려면 죄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꺼이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죄의 형벌을 자기에게 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로마서 6:23 (개역한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16 (개역한글)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먼저 삶을 깨끗이 하거나, 성경 전체를 알거나, 모든 기독교 가르침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죄란 쉬운 말로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과 옳은 것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 도둑질, 미움, 질투, 음욕이 쉬운 예예요.

죄 하나가 정말 중요한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필요해지려고 모든 계명을 다 어길 필요는 없어요.

죄는 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용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오셨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죄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용서의 제안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단절에서 구원으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이 주제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메시지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갈라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죄와 심판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길을 만드셨기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초대받은 것이지 강요받는 것이 아니예요. 예수님은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지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답은 여러분이 충분히 종교적이거나 충분히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단절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가르쳐요. 모든 계명을 어길 필요도 없어요.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실제 삶에서 우리는 모두 여러 번 실패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3:23 (개역한글)

선행, 교회 출석, 돈, 약속,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어요.

죄의 삶은 사망이에요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로마서 6:23 (개역한글)

삶은 벌었거나 빚진 것이예요. 성경은 죄에 사망이라는 실제 결과가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불못에서의 마지막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 요한계시록 20:14 (개역한글)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사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로마서 5:8 (개역한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요한복음 3:16 (개역한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선물로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리를 대신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성경은 구원이 선한 일을 충분히 해서 얻는 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선물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은 죄에서의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데려오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세요.

먼저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내 삶에 대한 진실을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세요. 구원은 충분히 착해지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자기에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예수님을 만나요기도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 구원받는 방법

응답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고, 선물은 받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라고 초대하시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결정은 진짜이고 개인적이어야 해요.

웹사이트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한다면, 그분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로마서 10:13 (개역한글)

요한복음 3:16, 로마서의 구원의 길, 로마서 10:9,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쉬운 설명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을 신뢰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구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려면 제가 먼저 충분히 착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스스로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죄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신다고 가르쳐요. 죄를 솔직하게 그분께 가져가 자비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네. 용서를 찾고 있거나, 내 죄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궁금하거나, 내가 한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면, 성경의 메시지는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구원은 먼저 완벽해져야 얻는 것이 아니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기에게 나아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고 부르세요.

지옥이 두렵거나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궁금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6 (개역한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나요? — 로마서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 모든 성경 예언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죄”에 대해 잠깐 설명할게요. 성경은 이 말을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거스르는 방식을 가리키는 데 써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보여 주는 예예요. 우리는 모두 실수했고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은혜와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스스로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로마서 6:23: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5:8: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약속을 꼭 붙드세요 — 로마서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 로마서 10:9 (개역한글)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아올 수 있어요. 그분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믿으세요. 먼저 스스로 충분히 착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부르세요.

완벽한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방법일 뿐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안내서를 읽는 모든 분을 위한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내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참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두려움, 속임수, 위험, 절망에서 지켜 주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상실로 아파하는 사람들, 다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도움과 자비로 감싸 주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세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깨닫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세요. 그가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두려울 때는 용기를, 벅찰 때는 평안을, 상실로 아플 때는 위로를, 혼란스러울 때는 좋은 판단력을, 주님께 신실하게 남을 힘을 주세요. 그들을 성경 말씀과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세요. 십자가와 빈 무덤, 주님의 자비와 용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요한복음 3:16 — “멸망하지 않고”와 둘째 사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16 (개역한글)

요한복음 3:16은 두 가지 결말을 대조해요. **멸망**과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얻도록 오셨어요.

뒤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0:14는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21:8도 불못을 다시 “**둘째 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16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성경이 나중에 계시한 마지막 심판과 둘째 사망과 일치합니다.

“멸망”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16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경고는 열린 약속과 짝을 이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이 말씀 속의 사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16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약속합니다. 로마서 10:9는 간단한 응답을 알려 줍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법

기도는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기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종교적으로 들릴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말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분께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일, 내린 결정, 자랑스러운 것, 바꾸고 싶은 것을 아세요. 그분께 무엇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나쁜 결정을 했나요? 물값만 냈는데 컵에 콜라를 채웠나요? 다른 사람이 승진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내가 갖고 싶던 것을 가져서 질투가 나나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세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리세요. 화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기쁠 때 말씀드리세요.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구하세요.

기도는 길고 화려할 수도 있지만,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운데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 베드로전서 5:7 (개역한글)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기독교가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셋은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하는 삼위일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알려진 **한 분 하나님**을 알려 줍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은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시며, 한 분 참 하나님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세요.

기도하기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진리를 설명하려고 수백 년 동안 애써 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 고린도후서 13:13 (개역한글)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신약 시대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 도와주세요”**뿐이라면 그렇게 말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막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마태복음 6:9 (개역한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 로마서 8:26 (개역한글)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기도를 마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마법의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나아갈 자격을 얻어서나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는 것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6 (개역한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 요한복음 14:13 (개역한글)

아주 간단한 구원의 기도

여러분을 구원하는 마법의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세요.** 기도는 여러분이 믿는 것을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할 준비가 되었다면, 기도는 아주 간단해도 돼요.

예수님, 저는 나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어요.

제 죄를 주님께 자백해요. 저는 주님께 믿음과 신뢰를 둡니다.

남은 평생 주님이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죽을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기도 자체가 공식이나 거래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곧 그분을 믿고, 그분께 돌아서고, 그분을 부르는 것을 가르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 로마서 10:9 (개역한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로마서 10:13 (개역한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9 (개역한글)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두려운 것, 필요한 것, 감사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특별하게 들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간단한 기도도 힘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일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내일은 무슨 말씀을 드리죠?

계속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드리세요.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좋은 판단력을 구하세요. 실패했을 때는 말씀드리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겁이 날 때 말씀드리세요.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분과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차 안에서, 침대에서, 직장에서, 걸으면서, 병실에서,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솔직하세요. 가지고 있는 말로 시작하세요. 그 말이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뿐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보기 또는 구원과 용서에 대해 더 읽기.

믿음은 어려운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은 강요할 수 없어요. 어둠 속에 서 있는 아이의 그림에서, 믿을 수 있는 목소리가 “뛰어. 내가 받아 줄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뭘지 말지는 여전히 아이가 선택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께 신뢰를 두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간단한 그림

어두운 계단 맨 위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계단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그때 아이는 자기가 알고, 사랑하고, 믿는 사람의 익숙한 목소리를 들어요. “뛰어. 내가 있잖아. 내가 받아 줄게.”

아이는 그 사람의 팔을 볼 수 없어요. 어디에 내려앉을지도 정확히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이 전에도 믿을 만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요. “내가 받아 줄게.”

그래서 아이는 뛰어요.

이것이 믿음의 간단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는 두렵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질문이 전혀 없거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항상 안다는 뜻도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받아 주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팔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충분히 신뢰해서 내 몸을 그분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1 (개역한글)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볼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은 계단이 어둡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둠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때로 믿음은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예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제 자신을 주님 손에 맡겨요.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완벽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 믿음이 작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믿을 만한 구주께 둔 작은 믿음도 여전히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 마태복음 17:20 (개역한글)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엄청나게 큰 믿음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진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의심, 두려움, 질문을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그분을 신뢰하도록 도와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은 사실을 아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이 받아 줄 것이라고 믿어서 실제로 뛰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음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에베소서 2:8 (개역한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충분히 강한지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께 솔직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 기도하는 법 배우기 · 구원에 대해 알아보기 · 영적 악과의 싸움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알아보기

예수님을 믿으셨군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해야 할 일 목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에요. 계속 배우고, 자라고, 질문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그분께 돌아오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는 길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있었던 일, 두려운 것, 감사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기도하는 법 배우기 →

성경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 중 하나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 알아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 달라고 구하세요.

성경 도움말 보기 →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예수님을 더 잘 알수록 믿음이 자라요.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에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

순식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을 기대하세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세요.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배우고, 계속 그분을 따르세요.

믿는 자의 세례로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다음 걸음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세례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마태복음 28:19 (개역한글)

가능하다면, 성경을 믿는 믿을 만한 교회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과 세례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찾아 서로 도우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처음부터 혼자서 다 걸어가도록 정해진 길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가능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나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세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배우고, 힘든 날 서로 도우며, 누군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일깨워 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 히브리서 10:24-25 (개역한글)

아직 배우는 중이어도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세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유혹과 영적 공격을 겪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배우고, 진리, 믿음, 말씀, 기도, 평안의 복음 안에 굳게 서세요.

영적 전쟁에 대해 알아보기 →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
요한일서 1:9 (개역한글)

예수님과 관계는 힘들어하지 않는 척하는 데 기초하지 않아요. 계속 그분께 말씀드리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읽고, 계속 그분을 따르는 법을 배우세요.

다음으로 할 간단한 일들

오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내 말로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조금 읽으세요.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어 보세요.

질문 하나를 해 보세요. 이해하고 싶은 것을 적어 두고 성경의 답을 찾아보세요.

믿는 자의 세례에 대해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성경을 믿는 믿을 만한 교회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과 세례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찾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서로 도우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하루에 모든 것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세요.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믿는 자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에요. 세례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보여 주는 것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가요?

네.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가르쳐 주고, 격려해 주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기도 노트나 “하나님 유리병”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노트, 또는 메모를 담은 특별한 병이나 “하나님 유리병”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아차리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기도 제목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응답을 알아차리면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적으세요. 한 달에 한 번쯤 기도 제목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어떤 기도는 아직 기다리는 중인지, 응답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왔는지 살펴보세요.

기억하세요. 응답은 “그래”, “아니”, “아직”, 혹은 구한 것과는 다른 무엇일 수 있어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적어 보세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느낀 한두 가지를 적어 보세요. 일출, 산, 꽃, 동물, 비, 별 같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겪고 있던 일에 꼭 맞게 말해 준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꼭 맞는 때에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뜻밖의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나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을 수도 있고, 늦어서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 더 일찍 도착했다면 뜻밖의 일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요. 혹은 너무나 특이한 일이 생겨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도 적어 두세요. 모든 우연이 기적이었다고 단정하거나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하셨는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냥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멈추고 그분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날 마음에 와닿은 성경 구절**과 그것이 왜 의미 있었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이 노트는 기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힘든 시기, 뜻밖의 응답, 보호받은 순간, 격려가 된 말씀, 그리고 그분의 창조가 가까이 계심을 일깨워 주던 평범한 날들의 아름다운 기록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 시편 19:1 (개역한글)

목표는 불안하게 곳곳에서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고, 아주 특별한 순간과 아주 평범한 순간 모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했어요.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해하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경은 유혹하고, 고발하고, 낙심시키고, 속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으려는 실제 영적 원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으며, 그의 최종 패배는 이미 확실해요.

사탄은 누구인가요?

성경은 이 원수에 대해 여러 이름과 설명을 써요. 그는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 비방하는 자 또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의 **마귀**, 시험하는 자, **악한 자**, **큰 용**, **옛 뱀**이라고 불려요.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 요한계시록 12:9 (개역한글)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 보셨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사야 14:12에서 “루시퍼”라는 말을 써요(개역한글에서는 “계명성”). 그 장에서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묘사된 교만한 추락을 사탄의 반역의 그림으로도 이해해 왔어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그리스도인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내는 그 본문이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척하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이예요.

에스겔 2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나요?

에스겔 28:12-17은 두로 왕에게 한 말씀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표현에서 타락하기 전의 사탄의 모습도 본다고 해요. 이 본문은 에덴, 큰 지혜와 아름다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과 관련된 존재를 설명해요. 그는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죄가 그에게서 발견될 때까지 행위가 온전했다고 말해요.

“너는 완전한 인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자라” — 에스겔 28:12 (개역한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행위가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 에스겔 28:14-15 (개역한글)

보석과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킹제임스 성경에서 **에스겔 28:13**은 **아홉 가지 보석**을 이 아름다운 존재와 연결해 말해요. 어떤 성경 교사들은 그 아홉 보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도시인 **요한계시록 21:19-20의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과 견줘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 내려다 늘 미치지 못하는 피조물의 모습을 봐요.

흥미로운 그림이지만 조심해서 말해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열두 보석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직접 묘사할 때는 벽옥과 홍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녹보석 같은 무지개를 써요 (요한계시록 4:3). 성경은 “루시퍼는 하나님의 열두 보석을 흉내 내려고 아홉 보석을 가졌다”고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 비교는 해석이지, 성경에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교만이 자랐다는 점이에요. 이사야는 그 교만한 말을 기록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핵심 진리는 간단해요. 한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리와 영광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 이사야 14:14 (개역한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 사탄을 얼마나 직접 설명하는지는 그리스도인마다 의견이 달라서, 이 안내는 모든 세부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제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들을 함께 놓고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움, 교만, 반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위로 올라서려는 피조물의 분명한 그림을 줘요.

기억하세요.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탄이 우주를 두고 싸우는 대등한 두 세력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탄은 피조물이고, 그의 힘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은 교만, 반역, 그리고 죄를 지은 천사들의 타락을 설명해요.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해 말하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에 대해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다가 결국 쫓겨나는 모습을 그려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 누가복음 10:18 (개역한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 베드로후서 2:4 (개역한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 유다서 6절 (개역한글)

성경은 사탄의 반역이 시작된 때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 주지는 않아요. 나중의 전승이나 추측을 성경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은 이미 그의 끝을 정하셨어요.**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나요?

성경에서 사탄의 방법에는 유혹, 거짓말, 속임, 고발, 낙심시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돌려세우려는 시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했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 요한복음 8:44 (개역한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 베드로전서 5:8 (개역한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나요?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의 신실함에 도전해요. 스가랴 3장에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려고 서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불려요. 이 본문들은 책망하고 탓하는 것이 그의 성품의 일부임을 보여 줘요.

욥기는 안심되는 사실도 가르쳐요. 사탄은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관하시고 한계를 정하셨어요. **모든 문제, 병, 유혹, 힘든 때를 자동으로 사탄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우리 자신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선택을 하며, 성경은 시련에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줘요. 하지만 고발, 유혹, 거짓말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야고보서 4:7 (개역한글)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여러분의 안전은 사탄보다 더 강하거나 똑똑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확신은 예수님께 있어요. 사탄은 유혹하고 고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지울 수는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 요한일서 4:4 (개역한글)

실패했을 때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세요. 있었던 일을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나 계속 그분을 따르세요. 원수는 수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밀어내고 싶어 해요. 복음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다시 부르세요.

사탄의 마지막 끝은 무엇인가요?

사탄의 마지막 행선지는 불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마귀가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해요. 사탄은 지옥을 왕처럼 다스리지 않아요. 지옥은 그에게 심판이지, 승리한 그의 왕국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 마태복음 25:41 (개역한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 요한계시록 20:10 (개역한글)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자리에서 영적 악에 맞설 수 있어요. 원수의 패배는 확실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 미신, 부적, 물리적인 폭력으로 영적 악과 싸우라고 하시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이 갑주는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진리와 습관의 그림이에요.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에베소서 6:11 (개역한글)

1. 진리의 허리띠

무슨 뜻일까요: 거짓, 두려움, 소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감정이 아니라 참된 것 위에 삶을 세우세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성경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배우세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거짓을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해 보세요. 진리를 말하세요. 속임수를 거부하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 에베소서 6:14 (개역한글)

2. 의의 흉배

무슨 뜻일까요: 흉배는 심장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의 안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실패했을 때는 숨지 말고 자백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정직, 친절, 순결, 긍휼, 순종을 선택하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 에베소서 6:14 (개역한글)

3.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무슨 뜻일까요: 좋은 신발은 군인에게 든든한 발판을 줘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기초를 주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를 시켜 줘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나눌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평안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곳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 에베소서 6:15 (개역한글)

4. 믿음의 방패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화살은 두려움, 유혹, 책망, 의심, 낙심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계속 신뢰하세요. 믿음은 질문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 에베소서 6:16 (개역한글)**

5. 구원의 투구

무슨 뜻일까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절망과 책망으로부터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구원은 흠 없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다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세요. 원수가 “너는 실패했으니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셨어”라고 말할 때,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세요.

“구원의 투구와...” — 에베소서 6:17 (개역한글)

6. 성령의 검 - 하나님의 말씀

무슨 뜻일까요: 검은 무기로 설명된 유일한 장비예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혀요.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셔서 사탄의 유혹에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성경을 읽고, 문맥 안에서 이해하고, 그 진리를 기억하고, 거짓이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적용하세요. 성경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진리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에베소서 6:17 (개역한글)

7. 기도 -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세요

바울은 곧바로 기도로 이어가요. 기도는 따로 있는 갑주의 한 부분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싸움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나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유혹받기 전에, 유혹받는 동안에, 그리고 실패한 뒤에 도움을 구하세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 에베소서 6:18 (개역한글)

아침마다 갑주를 입는 간단한 방법

의식이나 특별한 공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오늘 진리 안에서 걷도록 도와주세요.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저의 의와 구원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시켜 주세요.

두려움, 의심, 유혹, 고발이 올 때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구원의 진리로 제 생각을 지켜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가운데 주님 가까이 있게 해 주세요. 오늘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혹받거나 고발당할 때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께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그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안다면 천천히 읽어 보세요. 모른다면 성경을 펴고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죄짓기 쉬운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믿을 만한 다른 신자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넘어졌다면 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일어난 일에서 배우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9 (개역한글)

기도하는 법 배우기 · 구원과 용서 다시 살펴보기 · 전체 안내서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하기

수백만 명이 사라졌다면 —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휴거, 환난, 사라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분하고 성경적인 설명과 위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휴거란 무엇인가요?

휴거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신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 사이트는 그 믿음에 쓰이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해요.

수백만 명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최대한 침착하고 안전하게 계세요. 그다음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배우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휴거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이 안내서는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께 돌아서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기회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사람들을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거나, 수백만 명이 사라졌거나, “모두 어디로 갔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검색하고 있다면, 휴거라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처음 들었을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믿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일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설명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면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온라인에서 보이는 모든 무서운 주장을 믿지도 마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성경 구절을 직접 읽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어떻게 구원받는지 배우세요.

휴거란 무엇인가요?

휴거라는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데살로니가전서 4:13-18에 설명된 사건을 가리켜 쓰는 이름이에요. 그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도록 “끌어 올려질” 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51-53은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1-3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영접하시겠다고 말해요.

대규모 실종이 정말 일어났다면: 그 사건을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그다음 일어난 일을 이 구절들과 비교해 보세요. 온라인의 모든 설명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환난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환난은 매우 큰 어려움과 고통의 때를 뜻해요. 이 안내서에서 “환난”은 악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짐승이 큰 권세를 얻는다고 다니엘서, 마태복음, 데살로니가후서,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장차 올 기간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6-8장: 일곱 인 —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순교, 큰 혼란.

요한계시록 8-11장: 일곱 나팔 심판과 두 증인.

요한계시록 12-13장: 치열한 충돌,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표.

요한계시록 15-16장: 일곱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 17-18장: 바벨론과 그 심판.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능력으로 눈에 보이게 다시 오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천 년 통치, 사탄의 최종 패배, 그리고 큰 흰 보좌 심판.

다니엘 9:24-27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련된 칠십 “이레”에 대해 말해요. 이 안내서는 마지막 “이레”를 7년으로 이해해요. 요한계시록도 1,260일과 마흔두 달에 대해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부 사항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니, 성경 구절을 직접 읽어 보세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면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배우자, 혹은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면, 지금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상실의 슬픔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성경의 휴거에 정말 들어맞는 사건으로 수백만 명과 함께 동시에 사라졌다면,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이 안내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아기,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이 모두 포함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두려워하거나, 다치거나, 버려져 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휴거라면,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17: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는 모든 연령대를 따로 설명하는 휴거 구절이 없어요. 이 위로는 이 안내서가 따르는 환난 전 휴거의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휴거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고(마가복음 10:14), 우리는 온 땅의 재판장이 옳게 행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창세기 18:25).

반려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특정한 반려동물이 부활하거나 휴거로 들려 올라간다고 직접 약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께 속했다고는 말해요. 창세기 1:20-25와 시편 50:10-11을 보세요.

마태복음 10:29: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6**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로마서 8:19-22는 피조물 자체가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해요. 이사야 11:6-9과 이사야 65:25는 메시아의 평화로운 나라에서의 동물들을 그려요. 소망을 가질 이유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약속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영원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지만, 아주 특별한 소망도 줘요. 이 페이지의 목적은 겁을 주어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초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황금 길, 아름다운 보석, 생명수 강,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사랑 어린 안내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천국, 심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리고 지옥에 대해 말해요. 모두 진지한 주제이지만, 이 안내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6 (개역한글)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설명해요. 그곳에서는 악, 죽음, 슬픔,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아요.

제가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근거해요.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세요.

천국에서도 저는 저 자신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영생은 그분과 함께하는 참된 삶이라고 가르쳐요. 일부 세부 내용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이 안내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아요.

천국은 정말 있나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실제로 있는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천국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생명, 평안, 소망의 장소로 제시돼요.

성경은 지옥, 심판, 죄,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말해요. 이 안내는 겁을 주려고 그 주제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 구원, 사랑, 소망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큰 약속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3-4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더 이상 사망, 슬픔, 울음,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도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고 설명해요. 성곽은 벽옥과 관련지어지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며, 성곽의 기초석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진주 문과 황금 길. 요한계시록 21:21은 열두 문이 열두 진주이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라고 말해요.

해가 성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23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성이 빛을 위해 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생명수의 강. 요한계시록 22:1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그려 줘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2는 생명나무가 강가에 있고 그 열매와 잎사귀가 있다고 말해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어요. 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3-5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데살로니가전서 4:17 (개역한글)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미래를 생명, 아름다움, 거룩함, 경배, 섬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 제시해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창조하셨어요 — 영원한 단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생명과 모든 좋은 선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성경은 선한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회복된 창조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선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빛, 땅, 바다, 식물, 생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1:31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해요.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야고보서 1:17은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7:25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말해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받아요. 요한계시록 21-22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 새 예루살렘,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하나님의 빛, 저주 없음, 사망 없음, 슬픔 없음, 울음 없음, 고통 없음을 설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곧 그분의 은총, 나라,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정말 좋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의 가장 큰 보물은 새 예루살렘의 금, 보석, 강,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얼굴을 뵈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거예요.**

빛, 물, 생명체, 관계, 평안, 위로, 그리고 생명 자체처럼 창조 안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성경은 마지막 심판의 모든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둘째 사망 사이의 가슴 아픈 대조는 분명히 보여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요.

지옥, 마지막 심판,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읽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도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을 소중히 여긴다면, 영원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해야 해요. 부끄럽게 하려는 것도, 겁을 주어 믿는 척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원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 누가복음 16:19-31

예수님은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죽은 후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부자는 의식이 있고, 자기의 삶과 형제들을 기억하고,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며, 혀를 서늘하게 할 물을 구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놓여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부자는 형제들에게 경고해 주기를 원해요.

이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부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기를 원한다는 점이에요. 저도 같은 이유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 돌아설 시간이 있을 때 알려 드리고 싶어서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는데, 그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며,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시거나 어떻게든 그곳을 알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위로, 복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8-9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5:46은 영벌과 영생을 대조해요. 요한계시록 20:11-15는 마지막 심판과 불못을 설명해요.

성경은 끔찍한 대조를 보여 줘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된 창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그분의 빛, 그분의 나라, 그분의 얼굴,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받아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옥을 다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25:41은 영원한 불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0:10은 마귀 자신이 거기서 심판받는다고 말해요. **이것만은 알아 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계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 **로마서 10:9 (개역한글)**

구원받는 방법 읽기

성경 예언 — 요한계시록과 앞으로 일어날 일

성경 예언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자료는 공포를 일으키거나 결정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질문하고,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소망, 용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주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다니엘, 환난, 속임수, 짐승, 그리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남는 것에 대한 쉬운 안내예요.

환난 동안 속임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태복음 24:4)는 경고로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24:24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8-12와 요한계시록 13장도 강력한 속임수를 경고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이라 불리는 강력한 통치자와,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인물을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사고파는 일과 관련된 표도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14:9-12는 그 표를 짐승에 대한 경배와 충성에 연결해요.

중요: 성경은 그 표를 우연한 실수로 받게 되는 것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주변의 징조 없이 새로운 기술, 디지털 결제 방식, 신분증, 정치 지도자를 모두 짐승이나 그 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 쉬운 안내

다니엘 2장: 이어지는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 **다니엘 7장:** 짐승으로 그려진 나라들과 장차 올 인자의 통치. **다니엘 8장:** 후대의 나라들과, 종말의 성경 예언에서 다시 나타나는 주제를 미리 보여 주는 통치자에 대한 환상. **다니엘 9장:** 칠십 이레 예언. **다니엘 10-12장:** 영적 충돌, 전에 없던 환난의 때, 죽은 자의 부활,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언급.

요한계시록 1-3장: 예수님과 교회들. **4-5장:**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6-8장:** 인. **8-11장:** 나팔과 두 증인. **12-14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해를 입거나 벌을 받음, 표, 인쇄. **15-16장:** 대접. **17-18장:** 바벨론. **19장:**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재림. **20장:** 천년 왕국, 마지막 반역과 심판. **21-22장:**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회복.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성경을 펴 놓고 천천히 읽으세요. 이 안내는 환난 전 휴거, 미래적 관점, 전천년설의 이해를 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에 동의하지는 않으니, 성경 본문을 기초로 삼으세요. 여기서는 휴거의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 여기로 오세요.

두려움, 불안, 격려를 위한 성경 구절

두렵지 않은 척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오늘은 한 구절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나보다 크게 느껴질 때

두려움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겁이 나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을 솔직하게 그분께 가져가세요.

시편 56:3 (개역한글)

“내가 두려운 날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사야 41:10 (개역한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34:4 (개역한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무엇이 걱정되는지 하나님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처럼 간단해도 돼요.

빌립보서 4:6-7 (개역한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7 (개역한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34 (개역한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외롭다고 느낄 때

외로움은 힘든 날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거듭 일깨워 줘요.

히브리서 13:5 (개역한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27:10 (개역한글)

“내 부모는 나를 버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4:18 (개역한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생각이 멈추지 않아도 오늘 밤에 인생 전체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숨을 쉬고, 간단히 기도하고,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고 여기세요.

시편 4:8 (개역한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121:4 (개역한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상실로 마음이 아플 때

상실 후의 슬픔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울고,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1:35 (개역한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시편 34:18 (개역한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요한계시록 21:4 (개역한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절망스럽거나 지쳤을 때

마태복음 11:28 (개역한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40:31 (개역한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1 (개역한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음에 신실하게 내딛을 한 걸음을 위해 길 전체를 볼 필요는 없어요.

잠언 3:5-6 (개역한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고보서 1:5 (개역한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평안이 필요할 때

요한복음 14:27 (개역한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편 23:4 (개역한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

감정은 시간마다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이 쉬운 날인지 아닌지로 재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38-39 (개역한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5:8 (개역한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 중 하나가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짧게 답해 드려요.

두려울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나요?

시편 56:3은 “내가 두려운 날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말해요.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불안할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두려워요. 제 곁에 가까이 계셔 주시고, 분명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걸음을 위한 평안을 주세요.”

두렵다는 것은 제 믿음이 약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경 속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믿음은 아직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일 수 있어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드리는 간단한 기도

예수님, 저는 두렵고 너무 벅차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주님은 이미 아세요. 제 곁에 가까이 계셔 주세요. 다음 걸음을 위한 좋은 판단력과 오늘을 위한 힘과 이 순간을 위한 평안을 주세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당장 마음이 나아지지 않아도 이 기도는 진짜예요. 계속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하루씩, 때로는 한 시간씩 지나가 보세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위로와 찬양 페이지에 더 많은 성경 말씀, 찬송, 오프라인 찬양 도움이 있어요.

[위로와 찬양기도하는 법도움말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하기](#)

두렵거나, 상실로 아프거나, 외로울 때

두려움, 상실 후의 슬픔, 외로움, 혼란, 힘든 날을 위한 성경 말씀과 찬양 안내예요.

지금 느끼는 감정에 맞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신가요?

두려움, 불안, 외로움, 잠 못 드는 밤, 상실 후의 슬픔, 절망, 어려운 선택,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구절을 개역한글 본문 전체와 함께 쉽게 찾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두려움, 불안, 격려 페이지 열기 →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찬양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곁에 앉아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이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겁이 나거나, 지쳤거나, 상실로 아프거나, 그저 너무 벅찰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이 찬송들이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노래하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분께 나아오기 전에 강해질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기 전에 찬양 모음을 저장해 두세요. 인터넷이 될 때 전체 찬양 모음을 내려받으세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한 부, 64GB USB에 한 부를 저장해 두면 인터넷이 없어도 격려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어요.

은혜와 구원: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 How Sweet the Sound); 죄 있는 대로 나아갑시다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만세 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Cleft for Me); 하나님께 영광을 (To God Be the Glory).

친구가 필요할 때: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주 예수여, 주를 의지합니다 (I Am Trusting You, Lord Jesus).

위로가 필요할 때: 길르앗에 유향이 있네 (There Is a Balm in Gilead); 아름다우신 구주 (Beautiful Savior).

부활과 소망: 내 구주 살아 계시니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우리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We Praise You, O God, Our Redeemer).

찬양 자료실 열기

오프라인용 전체 찬양 모음 내려받기 (약 65MB)

두렵고, 불안하고, 상실로 아프거나, 외로울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나요?

두려울 때: 시편 23편; 시편 46편; 이사야 41:10; 요한복음 14:1-3.

외롭거나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 히브리서 13:5-6; 시편 27:10; 로마서 8:38-39.

상실로 아플 때: 요한복음 11:25-26;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요한계시록 21:1-5.

벽차거나 불안할 때: 빌립보서 4:6-7; 마태복음 6:25-34; 베드로전서 5:7.

죄책감이 들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까 두려울 때: 로마서 5:8; 로마서 8:1; 요한일서 1:9; 요한복음 6:37.

약해지거나 낙심될 때: 이사야 40:28-31; 고린도후서 12:9; 시편 121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해를 입거나 벌을 받거나 죽음을 마주할 때: 요한계시록 12:11; 요한계시록 14:12-13; 로마서 8:35-39.

속임수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마태복음 24:4, 24; 요한일서 4:1;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요한계시록 13장.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야 할 때: 요한계시록 19-22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세요. 악은 패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세요.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상황과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히브리서 13:8 (개역한글) 그분에게서 멀게 느껴지더라도 그분께 돌아설 수 있어요.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분을 부를 수 있어요.

생존과 비상 대비

즉각적인 안전, 식량, 비상용품, 물, 약, 위생, 정전, 통신, 장기적인 비상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생존 도움말이에요.

큰 위기 속의 생존과 비상 대비

좋은 **비상 대비**는 기본에서 시작해요. 개인의 안전, 깨끗한 물, 식량, 필요한 약, 위생, 통신, 대피처, 믿을 만한 정보예요. 이 **생존** 부분은 소문이나 두려움에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어요.

먼저 비상 안내서로 당장의 단계를 확인한 다음, 시간을 두고 실질적인 물품과 오프라인 정보 자료실을 갖추세요. 이것은 일반적인 대비 정보예요. 현재의 비상 당국과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가 있다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

사회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소식: 비상 시작 안내서

당장의 우선순위인 안전, 물, 약, 위생, 식량, 전기, 통신, 어린이, 노인, 오프라인 정보에 대한 단계별 비상 페이지를 사용하세요.

비상 안내서 열기비상 안내 PDF 내려받기

침착함을 유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어린이,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다쳤거나 혼자인 사람을 도우세요.

기본부터 챙기세요. 안전한 식수, 대피처, 필요한 약, 위생, 식량, 응급처치, 통신이 먼저예요.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하세요. 이 안내서를 인쇄하세요. 인쇄한 성경을 보관하세요.

PDF를 USB 드라이브나 오프라인 기기 여러 곳에 저장하세요.

개인정보를 지키세요. 온라인 활동은 항상 비공개인 것은 아니예요.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나누세요. 정확한 위치, 물품, 비밀번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올리지 마세요.

믿을 만한 공동체를 만드세요. 지혜롭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겁먹은 사람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께 신실하게 남으세요.

어떤 식량과 필수품을 보관해야 하나요?

이미 먹고 있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마련하세요. 백미, 마른 콩, 귀리, 마른 파스타, 밀이나 통밀, 분유, 설탕, 소금, 꿀, 고기나 생선 통조림, 콩·채소·과일 통조림, 견과류 버터, 상온 보관이 가능한 기름, 육수 큐브, 건조 수프, 양념, 차와 커피 같은 것들이에요. 포장 날짜와 상태에 따라 음식을 돌려가며 쓰세요. 부풀었거나, 새거나, 심하게 녹슬었거나, 손상된 통조림은 절대 먹지 마세요.

필수품에는 안전하게 보관한 물, 식수 여과 또는 정수 장치와 대체 방법, 수동 캔 따개, 전기를 쓰지 않는 조리 도구, 응급처치 용품, 합법적인 개인 상비약, 위생용품, 튼튼한 쓰레기봉투, 장갑, 기본 수공구, 덕트 테이프, 끈, 방수포, 담요, 날씨에 맞는 옷, 종이 지도, 인쇄한 지침서, 공책, 중요한 기록의 사본, 기후에 맞는 텃밭용 씨앗이 있어요.

지혜롭게 보관하세요. 물품은 서늘하고, 건조하고, 깨끗하고, 어둡고, 해충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에 두세요. 한 번의 누수, 화재, 도난, 해충 피해로 전부 잃지 않도록 중요한 물품은 나누어 두세요. 정확한 위치나 보유 물품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마세요.

비상 대비와 생존

큰 실종 사건이나 광범위한 위기가 일어났다면 먼저 당장의 위험부터 처리하세요. 그다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비상 안내서 내려받기 / 인쇄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겁이 나신다면

한꺼번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생각하기 어렵다면, 짧은 성경 구절 몇 개와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세요.

두려움과 불안을 위한 성경 구절 →

소문만 믿고 생사가 걸린 결정을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비상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대비 정보이며, 응급 구조 기관이나 의료 서비스를 대신하지 않아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두세요.

종이 사본, 인쇄한 성경, 이 안내서의 오프라인 사본을 보관하세요. 한 웹사이트나 한 기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처음 10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불, 손상된 건물, 폭력, 홍수, 끊어진 전선, 가스 누출, 교통 위험처럼 당장의 위험에서 멀어지세요.
2.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이 없는지 살피세요. 구조 기관이 작동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연락하세요.
3. 아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믿을 만한 어른과 함께 있게 하세요.
4. 답을 찾으려고 군중이나 위험한 곳으로 서둘러 가지 마세요.
5.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면 믿을 만한 출처를 여러 곳 이용하세요. 위기 때는 소문과 가짜 정보가 많다는 것을 예상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위기는 성경 예언을 시급하게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이 시간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고린도전서 15:3-4).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에베소서 2:8-9). 로마서 10:13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죄를 인정하고 구주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세요. 내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세요. 그다음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세요.

생존의 우선순위와 비상 대비

1. 안전과 대피처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세요. 그 위험에 맞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고르세요. 공식적인 대피나 보호 지침이 있으면 따르세요.

2. 안전한 물

가능하면 병에 든 물을 사용하세요. 물에 세균이 있을 수 있다면 끓이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이에요. 맑은 물을 팔팔 끓여 1분(해발 약 2,000미터, 곧 6,500피트 이상에서는 3분) 동안 끓이세요. 식힌 뒤 깨끗하고 뚜껑 있는 용기에 보관하세요.

경고: 연료, 독성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은 끓이거나 일반적인 소독을 해도 안전해지지 않아요.

3. 약과 응급처치

필수 약, 의료 기기 용품, 복용 약 목록, 알레르기 정보, 비상 연락처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심한 출혈,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심한 화상, 중독, 큰 외상, 의식 변화는 가능하면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해요.

4. 위생

마시는 물과 음식에는 안전한 물을 쓰세요. 손을 자주 씻으세요. 배설물이 물과 음식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세요. 평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와 묶는 끈을 쓰고, 가능하면 지역 보건 당국의 지침을 따르세요.

5. 식량

냉장이 불확실할 때는 상온 보관 식품을 먼저 쓰세요. 정전 중에는 냉장고와 냉동고 문을 가능한 한 닫아 두세요. 음식이 안전한지 의심스러우면 심각한 병의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버리세요.

6. 전기와 화재 안전

손전등이나 건전지 조명을 쓰세요. 발전기, 그릴, 연료를 태우는 캠핑 장비를 집, 차고 등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일산화탄소는 경고 없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7. 통신

가능하면 건전지나 수동 발전식 라디오를 갖추세요. 중요한 전화번호와 만날 장소를 종이에 적어 두세요. 휴대폰 배터리를 아끼고, 통신망이 몰릴 때는 문자 메시지를 쓰세요.

8.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기, 어린이,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의료 장비가 필요한 사람, 감각이 예민한 사람, 반려동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다른 누군가가 이미 확인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안전한 물은 어떻게 찾고 보관하나요?

세균과 화학물질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끓이면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잘 죽지만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방사성 오염은 없어지지 않아요. 화학물질이나 방사성 오염이 의심되면 다른 안전한 물을 구하고 보건 당국의 지침을 따르세요.

미리 보관할 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 사람당 하루 최소 1갤런(약 3.8리터)의 물을 최소 3일분 준비하라고 권해요. 가능하면 더 많이, 그리고 질병, 임신, 더위, 반려동물이 있으면 추가로 필요해요.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 깨끗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스러운 물을 마시지 마세요.
- 발전기, 숯불 그릴, 연료를 태우는 스토브를 실내에서 쓰지 마세요.
- 냉장이 끊겨 안전하지 않게 된 음식을 먹지 마세요.
- 제품 설명서에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지 않다면 청소용 화학제품을 섞지 마세요.
- 정확한 위치, 비밀번호, 귀중한 물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올리지 마세요.
- 전문적인 진료나 믿을 만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도 출처 모를 소셜 미디어 글을 보고 의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영적인 주장은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환난 동안의 성경 경고

이 사이트가 따르는 미래적 관점의 기독교 이해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짐승, 거짓 선지자, 속임수, 경배, 그리고 표에 대해 경고해요(요한계시록 13-14장).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영적인 충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변의 징조 없이 새로운 기술, 결제 방식, 신분증, 백신, 정치 지도자를 모두 그 표라고 단정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신실하게 남으세요. 요한계시록 13:7-18과 요한계시록 14:9-12를 직접 읽어 보세요.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거기에 설명된 표를 받지 마세요.

오프라인 자료실을 만드세요

인터넷 없이도 손에 닿는 곳에 이것들을 보관하세요.

- 인쇄된 성경.
- Millions Missing? 주요 안내서.
- 이 비상 안내서.
- 복용 약 목록, 비상 연락처, 중요한 주소, 가족 모임 계획을 적은 종이 사본.
- USB 드라이브나 기기 여러 곳에 저장한 오프라인 사본.

[비상 안내 PDF](#) [성경 안내서 PDF](#)

이 안내서가 알려 줄 수 있는 것과 알려 줄 수 없는 것

이 사이트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기독교적 관점을 소개하지만, 휴거의 날짜를 정하지 않으며 모든 위기가 요한계시록의 성취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사건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세요. 성경에 관한 주장은 성경이 권위이고, 기술적인 안전과 의료 결정은 가능하면 비상 대응 기관과 자격 있는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세요.

비상 지침은 미국 CDC와 FEMA/Ready.gov의 대비 안내를 요약한 것이에요. 기술적인 권고는 바뀔 수 있으니, 현지 당국의 최신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세요.

[Millions Missing?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자유롭게 복사 • 자유롭게 인쇄 • 자유롭게 나누기 • 출처 표기 불필요

MillionsMissingGuide.org

English • Español • Português • Français • العربية • हिन्दी • Русский • Deutsch • বাংলা • Bahasa
Indonesia • 简体中文 • Kiswahili • Filipino • فارسی • Українська • اردو • Tiếng Việt • Türkçe